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 도 자 료 • 배포 : 2018. 9. 5(수)	
담당자	• 일자리·사업화지원실 이혜령 실장 • ☎ 031-389-6321 • jeri@kaia.re.kr	
보도일시	• 즉시 보도해 주십시오.	

보다 정확하고, 보다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“2018 국토교통 기술평가 포럼” 개최

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: 손봉수, 이하 국토진흥원)은 기술평가* 제도 활성화를 위해 9월 5일(수),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「2018 국토교통 기술평가 포럼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○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, 사전 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.

☞ ‘기술평가’란?

: 사업화 대상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, 평가결과는 투자유치, 기술이전, 현물출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

* 국토진흥원은 '16년 12월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, 2017년 12건, 2018년 18건의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다.

□ 기술평가 대상기업, 평가위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술평가의 최근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한 우수사례 발표,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방안을 위한 패널토의 등이 이어졌다.

○ 특히 패널토의에서는 ‘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중요 판단요소인 사업성·시장성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’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았다.

□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“우수한 기술평가를 받고도 사업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”며 “기술평가 결과가 실제 기술 금융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 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* 사진(좌) 설명 : 국토진흥원 정규원 산업진흥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.

2018 국토교통 기술평가 포럼('18.9.5)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058억원('18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등과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.